



CONTENTS

Value



2019 Vol.75

**표지 이야기**  
마곡의 조감도와 넥센타이어의 가치들이 어우러져 타이어를 형상화합니다. 차체를 묵묵히 받쳐주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타이어처럼 넥센인들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06	<u>Theme</u>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10	<u>Value is 1</u> 반짝이는 아이디어, N'Dea
12	<u>Value is 2</u> 2018년도 신입사원 공채 '나에게 보내는 편지' 수여식
16	<u>Young Energy</u> NEW PLM TF팀
20	<u>Moving Talk</u> 넥센인에게 '가치'란?
22	<u>Zoom In NEXEN 1</u> 20년 연속 '주주총회 1호' 개최
24	<u>Zoom In NEXEN 2</u> KBO로부터 감사패 받다
26	<u>Zoom In NEXEN 3</u> '사랑과 나눔의 실천 업무협력 협약식' 체결
28	<u>Zoom In NEXEN 4</u> 양산·부산개인택시조합과 타이어 공급 업무협약 체결
30	<u>With NEXEN 1</u>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 밀반찬 배달 봉사
32	<u>With NEXEN 2</u> 배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34	<u>With NEXEN 3</u> 양산사랑카드, 온누리상품권 구매
36	<u>People &amp; People</u> 칭찬합시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9년 봄호 통권 75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9년 4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최은정, 문선미, 김지애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신화씨애펜피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Lifestyle



Report



40	<u>Movement Life</u>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이상은 대표
44	<u>NEXEN Club</u> 넥센타이어 산악회 새해맞이 첫 산행
48	<u>NEXEN Value</u>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볼까요?
52	<u>Travel Tomorrow</u> 봄으로 빛나는 그 섬에 가다
58	<u>We 튜브</u> 나만의 가치를 알려주는 물건들
62	<u>Culture Road</u>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66	<u>NEXEN Think-big</u> 나만의 한 단어
68	<u>I Can Save</u> 나의 아침을 친환경스럽게

74	<u>Best Partner</u> 타이어테크 오금점
78	<u>NEXEN News</u>
82	<u>참여 안내</u>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  
넥센타이어가 만들어갑니다



#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동경하던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주말 취재는 다반사였고, 마감 밤샘은 늘 반복되었다. 열심히 했고 나를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다. 관심과 동경보다 소중한 '가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많이 바뀌었다.

글 최승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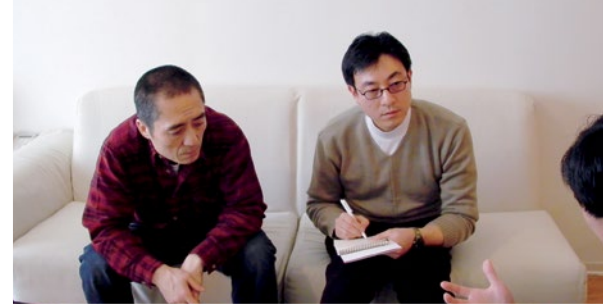
## 세상의 가치 속에서 방향하다

학교 창밖의 세상은 시끄러웠다. 구호와 비명이 혼재했고, 화염병이 불을 뿜었으며, 최루탄은 쉼 없이 눈물과 콧물을 뿜어냈다.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보였다. 군화로 무장한 사람과 얼굴을 가리고 외치는 사람.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집단과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외치는 집단. 두 집단은 서로 으르렁댔고 무언가를 계속 집어던졌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림픽이 열렸다. 뉴스에서는 연일 올림픽이 큰 행사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떠들어댔다. 방송에서는 긍정의 함성을, 길거리에서는 화로 가득 찬 구호를 토해냈다.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그렇게 큰 행사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난 몰랐다. 솔직히 고등학생 눈에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난 대입에만 관심이 있었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시절, 선배에게 첫 명함이라며 명함을 받았다. 회사 이름도, 선배 이름도, 연락처도 눈에 안 들어왔다. 눈에 박힌 건 '기자'라고 적힌 두 글자였다. 그게 그렇게 멋졌다. 기자라는 타이틀에 대한 동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대입을 위해 모의고사를 봤다. 점수가 나오면 습관처럼 내 눈은 각 대학별 신문방송학과 커트라인으로 향했다. 그 선배를 만나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기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그 선배는 어깨를 치며 파식 웃었다. "야, 나 영어교육 전공했어!" 전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네가 관심 있는 걸 공부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몰랐다.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탓일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유일한 관심이었다.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고, 동경하던 기자라는 직업도 굳이 전공이 필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입에 실패하고 나니 재수하면서 관심은 그저 대입이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처럼 성적에 맞춰 진학했다. 나랑 참 맞지 않는 행정학. 대학 4년에 전투경찰로 복무한 군 생활까지 포함한 기간 나의 관심은 오로지 취업이었다.


대학 4학년 2학기. 운 좋게 몇몇 기업에 합격했다. 어디를 선택할까 즐거운 고민을 하던 중 뽀빠(무선 호출기)가 울렸다. 그 선배였다. "너 기자 하고 싶다고 했지? 우리 회사에서 기자 공채 공고 났어. 4대 일간지에 크게 광고 났으니까 봐." 동경하던 직업을 잇고 살았던 탓일까, 설렸다. 대문짝만하게 난 광고를 보고 또 봤다. 그리고 기자가 되었다.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즐거웠다. 명함에 적힌 '기자'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뿌듯했다. 스스로도 대견했다. 열심히 일한 덕에 큰 잡지사로 스카우트되었다.



## 소통을 통해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다

아침에 출근하면 스스로 업무 배당을 했다. 오전 업무와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의 업무는 자정 넘어 끝나는 게 다반사였다. 직장은 서울, 집은 안산. 고속도로를 줄며 운전하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결국 회사 옆에 방을 얻었다. 기자의 타이틀은 어느새 편집장이었고, 또 본부장 으로 바뀌었다. 어딜 가든 소위 슈퍼 울트라 갑이었다. 난 성공한 줄 알았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자정 넘어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둘째가 오늘 아빠 오는 날이냐고 물어보네."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회사 옆에 방을 얻은 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아빠의 자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의 관심은 오로지 '일'이었다. 사직서를 냈다. 퇴사 즈음 코칭을 배웠다. 재직 시절 간간이 강의를 했다. 그게 재미있었다. 그걸 업으로 삼고 싶었다. 엄격히 말하면 코칭과 강의는 다르다.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코칭은 대상자에게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치를 접목하니 이렇게 강력한 게 없었다.

가장 큰 소득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소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많은 잡지를 만들며 난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격 없는 친근한 상사로 근무했지만, 그 역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시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코칭은 마흔 뒷줄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난 그게 뭔지 몰랐다. 나이 들고 나니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내 자신을 아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의 가치는 '소통'과 '가족'이었다. 코칭식 소통을 통해 소원해졌던 자녀와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난 진정 기뻐다. 여전히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여러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그 첫 질문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이다. 돈? 사회적 지위? 매출 목표 달성? 가족? 어떤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게 바로 당신을 이끄는 힘, 가치다. ⑧



최승영

전) 웅진출판 기자 공채 1기, 월간 〈My Wedding〉, 〈madame Figaro〉 기자, 월간 〈DOVE〉, 〈style H〉 편집장, 전략출판본부장.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현)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에이컴 대표, 디자인바이쑈 이사, a Group 이사, 블루밍경영연구소 파트너 코치





# N'Dea

# 마곡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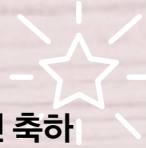
##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빛나게 하다

글 성과혁신팀 이대성 과장

넥센타이어가 다가오는 마곡 시대에 발맞추어, 사내제안제도(이하 N'Dea제도)를 그랜드 오픈한다. 임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만 해도 보상이 지급되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행까지 이어지면 등급에 따라 다양한 포상이 준비되어 있다. 임직원이 N'Dea를 제출하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부여되는데, 가장 우수한 N'Dea 제안자에게는 포상과 더불어 Global CEO Invitation과 부상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N'Dea 등록을 위한 별도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해당 시스템 접속 프로그램은 곧 배포할 계획이다. 성과혁신팀은 이번 N'Dea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 사내제안제도가 점점 보완되어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 밝히며,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㉞







2018년도 신입사원 공채 1주년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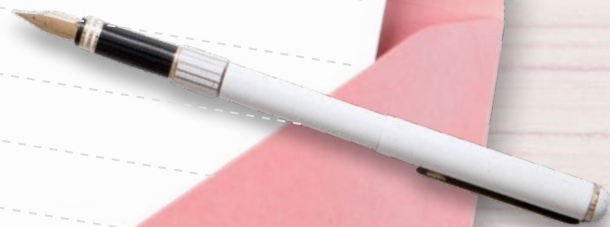
#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수여식

인재개발팀이 2018년도 신입사원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날을 위해 기다리고 묵혀왔던 타임캡슐이 1년이 흐른 지금 모습을 드러냈다.  
한 해 전 부푼 꿈을 안고 넥센타이어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1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 어떤 메시지를 적었을까?  
쓰고도 잊고 지냈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본 사원들의 표정에서  
놀람, 신기함, 다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진다.

글/사진 인재개발팀 이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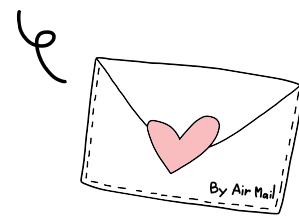
1년 전의 내가  
1년 후의 나에게



넥센타이어 2018년도 공채 신입사원들의 입사 1주년을 맞이해  
인재개발팀에서 뜻깊은 선물을 전달했다. 인재개발팀에서 준비한  
선물은 입문교육 당시 신입사원들이 직접 작성한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와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며 활동했던 팀빌딩 시간의  
사진을 담은 액자였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잊고 있어서 그런지 편지를 받고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mail



편지를 읽은 OE영업기획팀 조수민 사원은 “편지를 썼던 기억조차 잊었기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과거에는 1년 후 잘 적응하고 있을지 걱정했지만, 지금은 앞으로의 1년에 대해 기대하며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기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에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다짐했다. 원료개발팀 신호철 연구원도 “바쁘다는 핑계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썼나 싶기도 하고, 한 번씩 미래의 내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넥센타이어라는 회사를 만나 20명의 동기와 함께 3주라는 짧고도 긴 교육을 받았던 신입사원들. 넥센타이어와 함께할 1년을 생각하며 편지를 적었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수많은 감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 편지도 조금씩 잊어가겠지만, 언젠가 문득 떠올라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을 때 신입사원만의 풋풋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한 넥센타이어 2018년도 신입사원들의 발전과 성장을 기원해본다. ㉟





# NEW PLM TF팀 타이어 없는 타이어 연구소를 꿈꾸다

제품을 눈으로 보고 연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마곡 본사 이전을 앞두고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결성된 NEW PLM TF팀.

이들이 개발 중인 시스템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현재 업무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의 스마트한 재도약을 위해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는 NEW PLM TF팀을 만나보았다.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왼쪽부터 ◀  
임채홍 선임연구원,  
김남수 선임연구원,  
신미진 주임연구원



▶왼쪽부터  
이병진 선임연구원,  
최항목 주임연구원,  
육남석 팀장,  
최광혁 선임연구원



## Research를 위해 투자하다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앞에 NEW가 붙었다. NEW PLM팀은 기존에 있던 PLM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모인 TF팀이다. 현재 각자가 근무하던 팀에서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고 각출된 팀원들이 총력을 다해 4월 오픈 예정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TF팀이지만 개발을 진행하는 시스템의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려면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팀을 임시 팀이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1단계의 시스템 설계부터 시작해 3단계까지 진행되는 기간만 해도 5년이다.

NEW PLM팀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시스템을 사용할 고객은 넥센타이어에서 근무하는 넥센인들이다. 넥센인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연구소 R&D센터에서 이루어지는 R(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 연계와 자동화로 불필요한 일이나 중복되는 수많은 D(제품개발) 업무를 시스템이 처리하도록 설계해 시간을 단축하고 R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곡 이전과도 연계되는데, 본사를 마곡으로 이전하면 직원들은 생산 시설과 떨어진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모든 연구와 개발이 제품 없이 데이터 화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구축되면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인프라 구축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상상 이상으로 들어간 투자금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로 이끌어낼 수 없는 데 대한 부담감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프로젝트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 넥센인들에게 업무 질이 향상된 근무 환경을 제공해 더 좋은 연구와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해내는 것, 그것은 NEW PLM TF를 움직이는 열정이자 원동력이다.



## System은 살아 있다

시스템은 유기적인 것으로, 한 가지 버전을 만들어놓고 건물이나 물건처럼 망가질 때까지 써야 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용 중에도 끝없는 변화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 사항을 접목시켜 업무의 프로세스가 바뀌면 시스템도 업데이트가 계속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살아 있고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며 유지될 수 있다.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닌 사용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이유다.

NEW PLM TF팀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발해놓은 시스템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 그 시스템은 길을 잃고 사장되고 만다.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연구소 전체의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시스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사 직원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육남석 팀장은 이렇게 말한다. “시스템 구축은 우리 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완성은 넥센인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이자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전사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갈 프로젝트에 손가락만 얹을 뿐이라는 NEW PLM TF팀. 시스템의 성공적인 오픈과 정착이 이루어져 더 나은 연구 환경이 조성된 넥센타이어의 내일이 기대된다. 





# 넥센인에게 '가치'란?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남을 의식하지 않은 온전한 나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넥센인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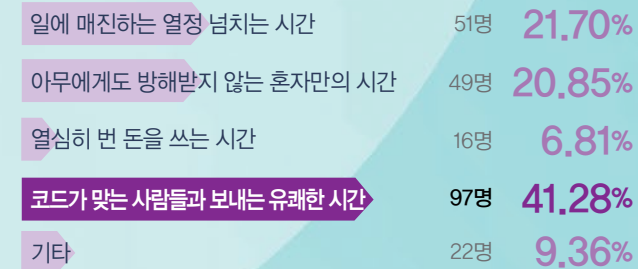
정리 이다영

## Q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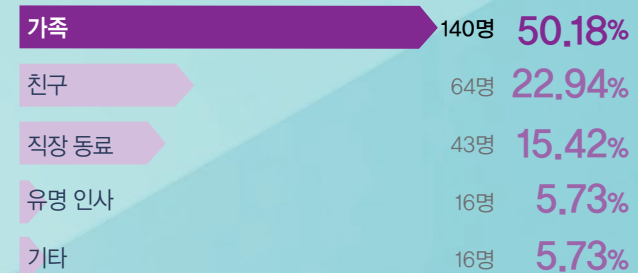
- 가족과의 행복 · 조국희
- 사람 관계 · 유재훈
- 무엇보다도 비꿀 수 없는 건강한 심신 · 김병갑

## Q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퇴근 후 가족들과 다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 조영화
- 남는 시간에 하는 봉사가 아닌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는 시간 · 유경열

## Q 당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나 자신 · 전형주
- 다양한 콘텐츠의 저자들 · 이병진
- 군대 상사 · 김호준



## Q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 이병진
-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확인했을 때 · 이종철
- '한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 강호권
- 지금 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 이웅찬
- 항상! 매 순간! · 최은미
- 고민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때 · 송강호
-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 아이랑 놀아줄 때 · 김정수
- 가족이 '고생했다'라고 말해줄 때 · 김종철
-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출장, 휴가 등으로 부재중에 회사에서 전화가 올 때 · 신미진
-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때 · 원동연



## Q 가치관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을 잡아주는 좌우명이나 글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역경을 피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 김수민
-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지. · 윤원국
- 아내 말이 진리다. · 김태형
- 죽게 되리란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지.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텐데. · 박세정
-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다만, 변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맞서서 부딪쳐야 한다. · 김상준
-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 이재엽
- 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다. · 김현승
- 땀은 진실하다. · 안철모





# 투명 경영의 선두주자, 넥센타이어 20년 연속 '주주총회 1호' 개최

글/사진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2019년 주주총회 시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넥센타이어는 2월 19일 오전 9시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경영 성과를 주주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로써 넥센타이어는 2000년 사명 변경 후부터 '주총 1호 개최'(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기준) 기록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는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과 주주에게 경영 성과를 빠르게 돌려주기 위한 주주 중심의 경영 철학이 더해진 것이다. 2018년 경영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9,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82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수출 9억불탑 수상을 비롯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포르쉐 마칸 후속 모델로 OE 공급을 확대하고, 유럽 최고 권위의 타이어 매거진 <아데아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과 기술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은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100원, 우선주 105원을 결의해 확정했다. 또한 주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회사 측 인사와 주주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체코에 위치한 유럽 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마곡 중앙연구소 건립 등을 통해 글로벌 4대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곡 중앙연구소는 지난해 신축, 확장한 미국과 유럽의 R&D센터를 포함해 글로벌 연구소를 통합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강호찬 대표이사는 “올해는 ‘글로벌 넥센, 제2의 성장 원년’이다. 시장맞춤형 영업 및 유통 혁신을 기반으로 판매 확대, 체코 신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다공장 체제의 운영 역량 강화, 마곡 중앙연구소 중심의 글로벌 R&D 역량 선진화 등을 통해 회사의 지속 성장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p>㉮</sup>





# 9년간 ‘히어로즈’와 함께한 넥센타이어, KBO로부터 감사패 받다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넥센타이어가 지난 9년 동안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로서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과 리그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2월 14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KBO 정운찬 총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KBO는 “넥센타이어가 히어로즈 구단에 대한 장기 네이밍 스폰서십으로 KBO 리그에 참여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고,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이 회사의 이익 창출을 넘어 한국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남겼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넥센타이어는 2010년부터 9년간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이자 KBO 리그의 파트너로 참여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히어로즈와의 동행을 끝내며 함께한 여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광고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sup>1)</sup>







2018년 12월 27일,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희망나눔미 봉사 동호회'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과 '사랑과 나눔의 실천 업무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2015년 4월 개관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지원, 직업 적응 훈련 등을 통해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주홍 넥센타이어 노동조합 위원장, 김재돈 인사지원 BS장, 정준욱 노사협력팀장, 김효진 양산시 시의회 부의장, 이명진 前 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박경만 희망나눔미 봉사 동호회 회장 외 넥센타이어 임직원과 봉사 동호회 회원 및 복지관 관계자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효진 양산시 시의회 부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협약 체결 선서, 서명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넥센타이어 희망나눔미 봉사 동호회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매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상·하반기에는 넥센타이어 노사합동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㉞



양산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CSR 사회적 실천 협력

# ‘사랑과 나눔의 실천 업무협력 협약식’ 체결

글/사진 노사협력팀 팽치훈 대리







## 넥센타이어 양산·부산개인택시조합과 타이어 공급 업무협약 체결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사진 영업3팀 송현영 대리



넥센타이어가 양산·부산개인택시조합과 양산·부산 개인택시 1만 4,300여 대에 대한 타이어 공급 및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2월 26일 창녕공장에서 진행 됐으며, 넥센타이어 박주홍 노동조합위원장, 한국지역 황충상 BS장, 양산시의회 김희진 부의장, 부산개인택시조합 김호덕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넥센타이어는 양산·부산 영업용 개인택시 타이어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으로 상호 공동 이익 증대를 통한 상생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이와 같은 MOU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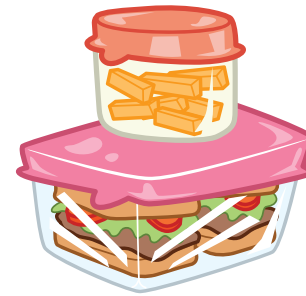
이날 황충상 BS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산·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타이어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해 넥센타이어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덕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시 영업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조합원들에게 공동 구매로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운송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부산·경남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향토기업인 넥센타이어의 매출 신장 등 공동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계약에는 김희진 양산시의회부의장과 박주홍 넥센타이어 노동조합위원장의 역할이 큰 힘이 되었다.

박주홍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업무제휴는 향토기업 노·사와 지역소비자가 한 마음으로 상생의 길을 만든 좋은 예가 된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업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㉞





##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 밀반찬 배달 봉사 진심으로 전하는 맛있는 희망



###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2월 22일, 넥센타이어 노사협력팀과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 회원들이 양산공장 월석관 화이트룸에 모였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던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는 지난해 12월 양산시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희망을 전하고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거듭했다. 그 결과 양산시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건강 강화를 위한 밀반찬 배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은 김정자 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이 진행했으며, 이번 밀반찬 배달 봉사활동은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 경상남도 관내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인 데다, 장애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넥센타이어 노사협력팀에서는 희망 나누미 봉사 동호회 밀반찬 배달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양산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봉사 동호회의 안정적인 사업을 전개, 연말에는 창녕공장 봉사 동호회 창단 등 전사적인 봉사활동 불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 매주 목요일의 기분 좋은 약속

2월 28일, 밀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가 다시 모였다.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봉사 동호회는 내부적으로 3개 팀을 편성하고 각 팀별 팀장과 부팀장을 선정했다. 그리고 교대 근무 특성상 근무 시간별로 오전 10시, 오후 3시로 나누어 밀반찬을 배달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와 함께 장애인 재가가정을 하나씩 찾아가다. 봉사 동호회는 단순히 밀반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며 장애인 가족들과 공감을 나누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밀반찬 배달 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 하는 봉사활동이라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작은 밀반찬일 뿐이지만 힘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방문이 희망을 전달한다는 거창한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기분 좋은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 ㉞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가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위해 교육도 받았다.  
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밀반찬 배달에 나선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를 찾아가보자.

글/사진 노사협력팀 팽치훈 대리







넥센타이어,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펼쳐

## 배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직장인들의 유일한 힐링 타임, 점심시간. 그 황금 같은 점심시간을 가치 있는 일로 더 배부르게 보낸 사람들이 있다.  
봉사활동에 나선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 식구들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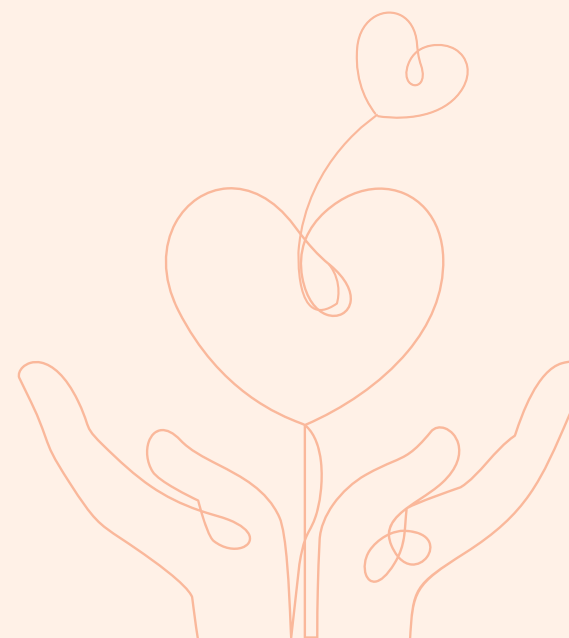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Hello NEXEN



이번엔 서울 사무소가 나섰다! 지난 3월 22일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 직원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직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준비부터, 따뜻한 음식이 담긴 식판을 테이블에 전달, 설거지, 뒷정리 등을 하며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 넥센타이어는 사회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비롯해 김장 나눔, 헌혈, 이웃돕기 성금 기탁, 지역 축제 후원, 지역 환경 정화 등 전국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㉞





넥센타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양산사랑카드, 온누리상품권 구매

글 문화혁신팀 김혜인



넥센타이어는 1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양산사랑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구입 금액은 총 4억 2,100만 원이며, 양산사랑카드는 양산시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 경영지원 이현종 BG장과 박주홍 노조위원장은 “넥센타이어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양산사랑카드의 발행 취지가 좋아 함께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에서는 넥센타이어의 동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양산사랑카드에 넥센타이어 로고를 삽입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번 넥센타이어의 기업 이윤 사회 환원 사례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양산사랑카드 발급 동참이 이어져, 지역 내 소비 문화 확산과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㉞





##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행하는 선행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그리고 칭찬해준다면 그 선행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나만 알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동료의 선행을 <헬로우 넥센>이 전해드립니다.

정리 이다영



▲ 박한기 직장



▲ 김용훈 사우

## (YP) 기업문화팀 총무계 강동환 사우가 (YP) 정련파트 박한기 직장과 공정관리파트 김용훈 사우에게

두 사우는 평소에도 사외 봉사활동을 자주 하는 성실한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간조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나간 두 분의 이야기를 <헬로우 넥센>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시민들이 양산시의회에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회의장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2층에만 설치돼 있어 3층으로 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장애인분들이 의회에 참석조차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박한기 직장과 김용훈 사우가 야간 근무가 끝난 후 오전 10시 경부터 곤란해하는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계단으로 휠체어를 들어 올려 장애인분들을 이동시켜주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들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야간 근무 후라 피곤했을 텐데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타인을 위해 도움을 준 박한기 직장과 김용훈 사우 덕에 참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동료들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두 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 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동환 사우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멀리 가는 만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딛는 걸음이  
미래를 움직입니다.



말보다  
솔직한  
몸짓을 보라

”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이상은 대표

## 숙제처럼 사는 오늘이 아닌 축제처럼 사는 오늘이 되기를...

이상은 대표는 TV, 라디오, 강의, 컨설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비언어 커뮤니케이터다. 최근에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이영자, 양세형, 유병재 등 패널들의 행동을 분석하며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그녀가 말하는 숙제처럼 사는 삶이 아닌 축제처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선릉의 한 카페에서 첫 대면을 한 이상은 대표는 TV 화면에서 본 것처럼 예쁘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것보다 더 눈에 띈 것은 말을 전달할 때 보이는 몸짓이었다. 걸음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동작, 움직임 등을 통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몸짓 언어, 비언어. 그녀는 비언어 커뮤니케이터답게 비언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며 말의 전달력을 높이고 신뢰감을 느끼게 했다.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시선, 표정, 행동이다. 비언어로 통칭되는 이러한 몸짓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발생시켜 나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배운 적이 없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언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한다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인 선릉역으로 가는 도중 방송이 흘러나온다. “이번 역은 역삼, 역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하지만 지하철 문이 열리고 고개를 들어 밖을 보니 선릉이라고 쓰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들은 정보를 무시하고 바로 뛰어내린다. 본 정보와 들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본 정보를 신뢰하도록 우리 뇌가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머리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어떤 제스처를 보일지, 어떤 미소를 떨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상은 대표는 상대방과의 인연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마음 먹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옷차림이나 외적인 첫인상보다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 못지않게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과 보디랭귀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몸짓에 대해 묻자 그녀는 의외로 굉장히 쉽다며 팜업에 대해 설명했다.

“팜업이란 손바닥을 펴서 위로 올리는 제스처로, 상대에게 빈 손바닥을 드러내 ‘난 당신을 해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예요.”

이 제스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훨씬 더 진실되게 느끼며 호감을 갖게 된다. 반대로 비호감을 줄 수 있는 몸짓에 대해서는 아직 호감이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몸을 너무 많이 확장시키는 제스처,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미소와 팔짱을 꼈었다. 그녀는 특히 팔짱에 대해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편하다는 이유로 팔짱 끼는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이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 옷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오해의 소지를 전달하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 몸을 확장시키면 마음도 확장된다

표정과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몸을 수그린 상태라면 기분이 나아지기보다 우울해진다. 못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세뇌하는 것 같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 것이다. 자신을 설득하려면 몸짓도 바뀌어야 한다. 어깨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감 호르몬이 향상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하는 설득은 통한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보디랭귀지는 자신의 감정에 관여한다”며 이상은 대표는 몸짓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가 2분만 몸을 확장시킨 행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자신감 호르몬이 20% 증가한다. 반대로 2분만 몸을 수그린 행동을 하면 자신감 호르몬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몸짓에 따라 호르몬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티베트에는 족첸이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힘이 들 때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서 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명상법이에요. 고개를 들고 몸을 펴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다 보면 우울했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경험하는 일 중엔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다. 좋지 않은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숙제처럼 느끼고 축 처져 하루를 보낸다면 우울에 갇힌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몸을 펴고 축제처럼 하루를 보낸다면 당신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옷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웃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이해, 비언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가치 있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㉞

자신을  
설득하려면  
몸짓도  
바뀌어야 한다

”



설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 넥센타이어 산악회 새해맞이 첫 산행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 않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넥센타이어 산악회 회원들이다. 넥센타이어 산악회가 기해년 새해맞이 첫 산행에 올랐다. 이번 등반에는 특별히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했다고 한다. 그 현장 속으로 가보자.

글/사진 (YP) 가류파트 김상섭 소장



## 등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주한 위기

넥센타이어 산악회가 기해년을 맞아 첫 정기 산행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사내에 신설된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했다. 봉사나누미 회원과 넥센타이어 산악회 레드조 회원 총 35명이 지리산 노고단 1,507m를 오르기로 했다. 넥센타이어 산악회는 회원 수가 200여 명이나 되는 몸집 큰 동호회다.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움직이기도 어렵고, 교대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레드, 블루, 그린의 3개 조로 나뉘어 돌아가면서 산에 오른다. 이번에는 레드조 차례였다. 양산역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 전남 구례군 산동면 성삼재 주차장으로 향했다. 성삼재 주차장에 도착하니 지난밤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온통 꽁꽁 얼어 있었다. 산 입구가 이 정도면 산길은 상태가 어떨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산행을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 같았다. 등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려야 할 위기가 닥쳤다.

## 넥센타이어 산악회의 탄탄한 운영 체계

이때 급하게 송광석 회장과 김상섭 사무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했다. 올해 선출된 송광석 회장은 50번째 회장이다. 2019년에는 운영진을 대폭 강화해 운영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다. 송광석 회장과 은흥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고문과 감사까지 두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호회 안에 체계가 잘 잡혀 있어 어떤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회사가 설립된 1942년부터 오랜 시간 동호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체계가 잘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송광석 회장과 김상섭 사무국장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 신발에 아이젠을 채우고, 산행대장 2명을 선두로 회원 10명씩 조를 짜서 노고단을 오르기로 했다. 이번 산행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큰 산행이었다. 기해년 새해맞이 첫 산행인 데다 희망나누미 봉사 동호회까지 함께하는 산행이었다. 눈앞에서 이대로 포기하고 물러설 수 없었다.







### 서로 도와주면서 산을 오르는 동호회 사람들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와주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눈으로 차갑게 얼어 있었지만 눈을 밟는 소리가 너무도 포근하게 들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연신 불을 할퀴며 지나갔지만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했다. 지리산은 맑은 공기, 산새 소리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등산로 입구에서 걱정했던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회원들이 서로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산을 오르니 더 즐거운 등산이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간 끝에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저 멀리 노고단 정상을 바라보며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각자 배낭에서 과일과 음료를 꺼내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대피소에서 만난 노부부가 우리를 향해 말했다. 20분만 더 가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세상이 저기 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고단 정상이 가까이에 있었다.



### 노고단 정상에서 느끼는 행복

드디어 35명 전원 노고단 정상에 올랐다. 어느 광고에서처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장관이었다. 지리산이 명산으로 이름을 떨치는 건 산 정상에 이런 장엄한 경관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름다운 장관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나 힘든 등산 과정을 참고 기꺼이 산을 오른다. 꿈꿨던 설산도 넥센타이어 산악회 회원들과 희망나누미 회원들 앞에서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산행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무사히 정상에 도착해 더 뿌듯했다. 겨울 산을 오르면서 고난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었다. 우리 산악회가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요인도 이렇듯 포기를 모르는 정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넥센타이어 산악회는 앞으로도 회사에 기여하면서 회원 개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호회로 거듭날 것이다. ㉞





## 워라벨에 한 걸음 다가가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볼까요?

일이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일은 삶의 중심을 이루는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다.  
일과 삶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틀 속에서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워라벨에 가까워질 수 있다.

글 성열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이뤄지고 있다. '일과 삶이 분리될 수 있는가?' '일과 삶은 수평적인 가치인가?' 애초에 '워라벨'은 시간의 동등한 분배로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도 어렵다. 자아실현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볼 때 일은 자아실현의 1차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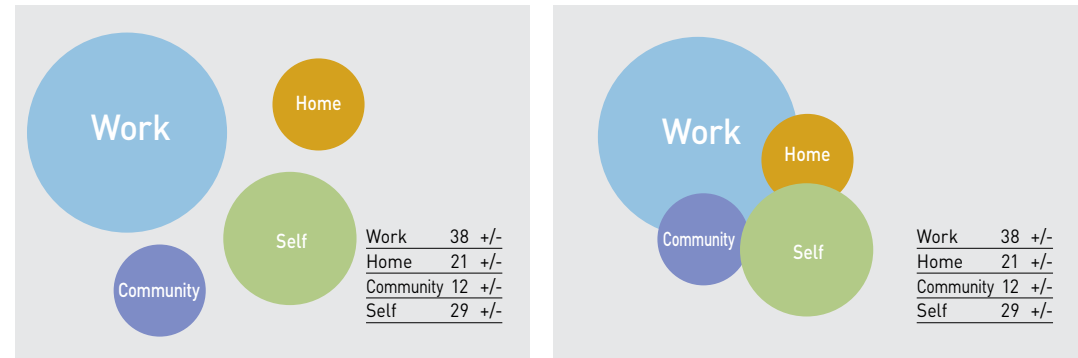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학대학원 스튜어트 프라이드먼(Stewart D. Friedman) 교수는 저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Leading the Life You Want)>에서 워라벨이 말하는 '균형'에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균형'은 어떤 중요한 가치들의 대립을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삶을 구성하는 일과 학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같은 요소들을 각각 분리시켜서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일은 자아실현의 한 통로이자,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그 외의 요소들은 일과 연동되어 또 다른 관계와 가치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분리적 시선이 아닌 통합적 관계 설정만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워라벨'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 1단계 삶의 무게중심 판단하기

스튜어트 교수가 워라밸의 첫 번째 단계로 제안한 것은 현재 삶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삶의 구성 요소를 크게 일, 가족, 공동체, 자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구체적인 상태나 모습을 '네 개의 원'으로 구현해보라고 말한다.



네 개의 원의 크기는 삶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를 움직여 각각이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어느 영역끼리 겹치지 않고 대립하는지, 어느 영역끼리 겹치면서 양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원이 하나의 큰 원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삶의 형태를 점검하고 어느 부분에서 접점을 만들어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다.

### 2단계 삶의 영역에 접점 만들기

일, 가족, 공동체, 자아의 네 영역을 좀 더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스튜어트 교수가 제안한 것이 있다. 일 이외의 삶 속에 있는 대상을 사무실에 가져다놓는 것이다. 가족사진, 여행 기념품, 트로피 같은 것들이다. 이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그것을 통해 일에서 발휘하는 시너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반대로 사무실의 물건을 집에 가져다놓으면 가족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접점은 그 영역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낸다. 이는 일의 영역에 가정이나 자아 같은 다른 영역을, 반대로 가정의 영역에 일과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3단계 자신의 장점 확장하기

삶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접점이 많아질수록 풍성해진다. 서로 다른 영역의 구성원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얻었다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력서를 만들듯 리스트로 작성해보자.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좋다. 달리기, 꽃꽂이 같은 취미부터 동료의 멘토 역할이나 봉사활동, 엔터테인먼트적 기질 같은 사소한 능력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장점을 서로 다른 삶의 영역, 즉 가정이나 일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회사 내에 달리기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한다거나, 회사에서 멘토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같은 방식으로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특기나 취미의 확장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줄 수 있다.

### 4단계 영역의 경계 재설정하기

일과 가정, 가정과 공동체, 공동체와 자아 같은 영역이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루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각 경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누기'와 '더하기'다. 매일 저녁 야근을 하고 있다면 저녁 식사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지키자.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투자하자. 이것이 '나누기'다. 이를 반대로 하면 '더하기'가 된다. 이는 둘 이상의 영역을 같은 시간에 할애하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후원하는 기금 행사에 자녀들을 데려가거나,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계 재설정이 처음부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 나누기와 더하기를 한 뒤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생산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별여놓은 일이 줄었다고 느끼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도나 친밀도는 상승했는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의 재설정은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며, 관계 개선에 효과를 줄 것이다.

요즘은 돈이나 명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는 일의 영역이 많은 비중을 할애했던 이전 세대에 대한 반향일 수 있으며,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만족감을 갖는 일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속에도 일과 가정, 공동체, 자아의 영역이 존재하고, 각 영역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워라밸은 근래 부각된 가치관이 아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원했을 것이다. 다만 각 영역들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보다 일부 영역을 포기한 결과 삶의 불만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일과 삶을 시간으로 나누는 기계적 균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워라밸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삶의 모든 영역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하지만 삶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하루하루의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풍족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⑩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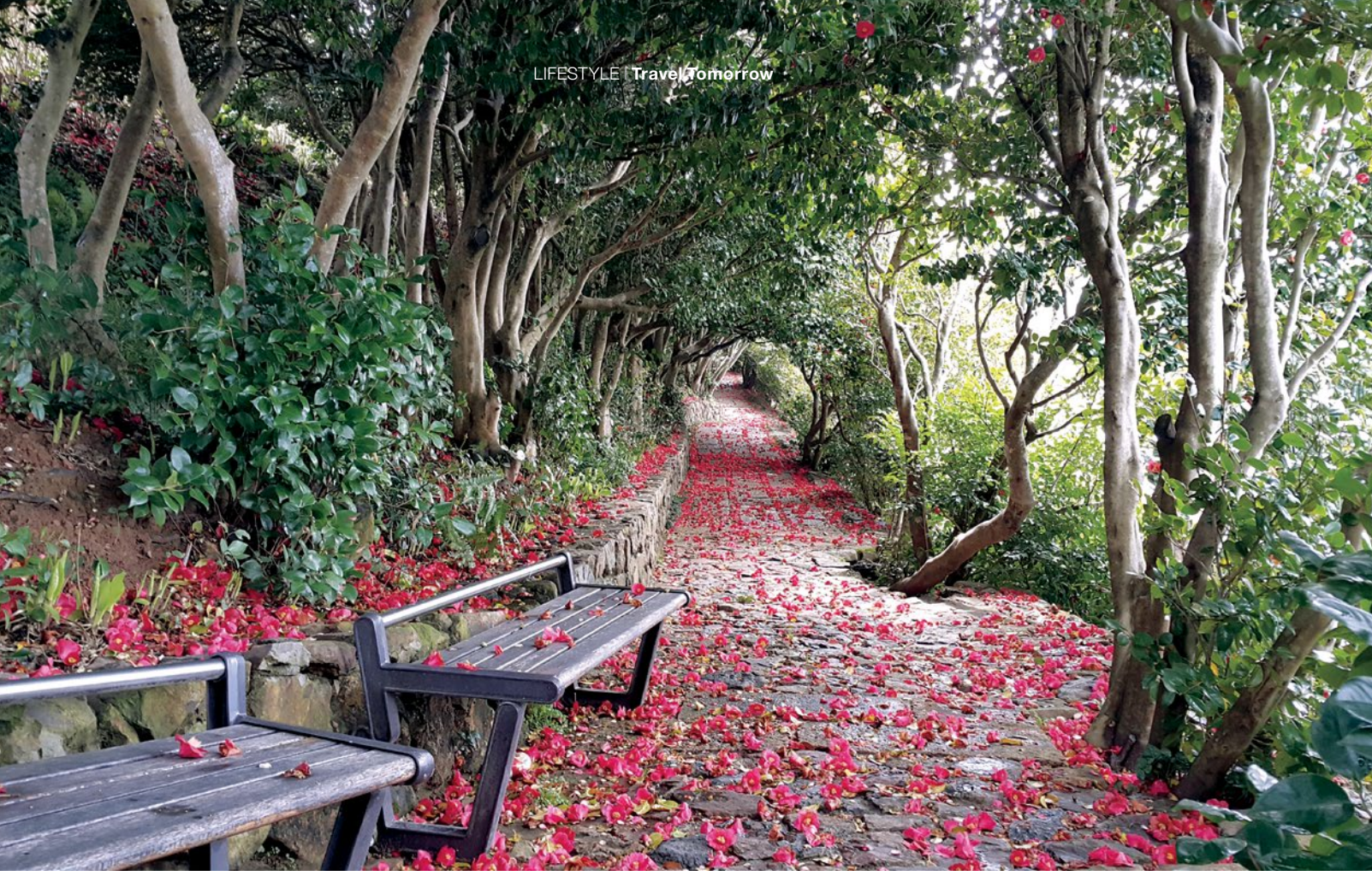
# 봄으로 빛나는 그 섬에 가다

육지에 이르기 전에 버선발로 먼저 뛰어나가 봄을 맞이하는 남쪽의 섬, 장사도. 겨우내 한파를 이겨낸  
그 섬이 온통 꽃단장을 하고 또다시 전국 각지에서 찾아들 상춘객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바야흐로 다도해 봄의 시작이다.

글 박민우 기자 사진 협조 장사도 해상공원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봄이 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디로 가야 반가운 봄을 만나려나? 아무래도 남쪽은 이미 봄이 왔겠지? 땅끝까지 가볼까? 바다 건너 그 섬이라면 이미 봄기운이 완연하지 않을까? 통영이나 거제로 가서 유람선을 타야겠다. 봄빛으로 눈부신 바다를 건너 다도해를 노닐다가 그 섬, 장사도의 봄 속을 거닐어봐야겠다.

### 100m 동백터널이 반겨주는 장사도

겨울에 피어 봄을 부르는 동백꽃. 10만 그루의 동백이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경남 통영에 속해 있으나 거제도과 더 가까운 섬 장사도. 누에를 닮았다 하여 '잠사도'라고도 불렸던 이 섬은 원래 주민들이 거주하던 섬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떠나고 해상공원이 조성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통영유람선터미널에서 40분, 거제 가배항·다대항·저구항에서는 10분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면 도착할 수 있는데 타고 갔던 배를 다시 타고 나와야 하니 유람선 이름과 시간을 꼭 메모해두어야 한다. 어디서 출발하든 섬으로 이동하는 동안 갈매기들이 반겨주어 심심할 틈이 없다. 봄기운이 완연한 해풍을 맞으며 섬에 도착. 배를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나뉘져 있어 혼잡스럽지 않은 첫인상이 좋다. 드디어 봄을 만날 시간. 먼저 봄의 전령사 동백꽃이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환영 인사를 한다. 붉은빛이 어찌나 화려한지 사뿐히 지르밟고 가지는 못할 지경. 100m나 이어지는 동백터널은 장사도 여행의 백미다. 많은 사람이 드라마 속 주인공을 자처하며 기념사진을 찍느라 정체가 빚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장사도의 동백꽃은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여러 종류의 봄꽃과 함께 즐길 수 있다.

### INFO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

- 이용 시간 : 오전 8시~오후 7시
- 입장료 : 유람선 티켓 구매 시 장사도 입장권 함께 구매  
 어른 1만 500원, 학생 8,000원, 어린이(만 3세 이상) 6,000원  
 유람선 요금 별도(출발지별 요금이 달라 각 선사에 문의)  
 통영유람선터미널(055-645-2307),  
 거제 저구항(남부유람선 055-632-4500),  
 대포항(대포크루즈 1588-0257),  
 가배항(장사도유람선 055-638-1122)
- 주소 :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길 55
- 문의 : 055-633-0362, [www.jangsado.co.kr](http://www.jangsado.co.kr)





장사도의 명물, 장사분교와 무지개다리

봄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동백을 뒤로하고 길을 서둘렀다. 입도할 때 받은 지도를 보며 번호를 따라 이동하면 장사도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둘러볼 수 있지만, 어느새 일행이 된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안내도의 존재가 무색해진다.

지금은 폐교가 된 장사분교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다양한 모양의 각종 분재를 전시해놓아 눈이 즐겁다. 말뚝박기를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이 조각상으로나마 남아 있어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 이어 만날 수 있는 무지개다리는 장사도의 명물 중 하나. 자연 속 인공 구조물이긴 하지만 아치형 다리는 주변과 잘 어울린다. 비 온 뒤에는 무지개터널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무지개다리로 불린다. 이 다리를 넘어가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떠 있는 많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달팽이전망대, 승리전망대, 다도전망대가 있어 시원한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해상공원

2012년 1월 1일 개장한 장사도해상공원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조성 기간만 10여 년이 걸렸다고. 섬에는 동백나무를 비롯해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풍란,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 희귀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한다. 특히 공원 곳곳에 조각 작품이 설치된 야외 갤러리 조각공원, 옷칠미술관, 야외 공연장 등 자연과 더불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여 문화해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통영국제음악제 기간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제 공연이 펼쳐지고, 평상시에는 관람객을 위한 공연이 열린다. 1,000여 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은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계단 형태로 이루어져 객석에서 무대와 바다 전망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

객석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듯. 붉은 동백의 물결과 봄꽃 향기에 취해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면 어느덧 배를 타러 갈 시간.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온실과 누비하우스의 옥상전망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며 잠시 사색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메일로드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손 글씨로 예쁜 엽서를 써서 보내는 것도 좋겠다. 향긋한 봄의 향기를 소중한 사람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으니까. ㉞





# 남들과는 달라 달라! 나만의 가치를 알려주는 물건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개성과 취향이 숨어 있다.

길바닥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한 물건이 되기 때문이다.  
넥센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알아보자.

정리 정유미



## 지루한 기다림도 설렘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CP) 공무원팀 원동파트 이광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신발이 제 애장품입니다. 비록 신지 않는 신발이 될지라도 하나하나 사 모을 때의 과정이 좋아요. 신발 발매일을 기다려 신청하고 추첨에서 당첨되는 그 짜릿한 순간이 좋아요. 당첨되지 않더라도 설레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신발이 당첨되어 구매할 때는 그 성취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가 커지고 당첨의 기쁨은 그 이상으로 더 커져요.



# Your Value



## 몸이 멀어져도 마음은 멀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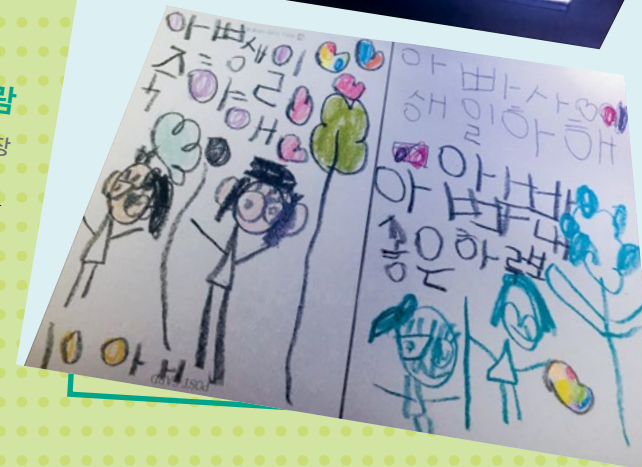
고객만족팀 김대영 과장

전북 전주 근무 시절, 다음 근무지가 부산으로 발령 났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곳의 사장님이 전주에서의 추억을 간직하자며 텀블러를 제작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타이어테크 인화점 이병철 사장님, 형수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장님, 형수님과의 추억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올해 꼭 찾아뵙겠습니다.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재개발팀 김주엽 과장

제가 이번에 받은 생일 선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올해 생일은 어느 때보다 특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라희가 직접 만들어준 생일 카드와 직원들이 선물해준 시계.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나간 유행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CP) 생산관계계 이호섭

저의 특별한 애장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1983년에 만들어진 호돌이 컵인데요.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금부상 중인 컵입니다. 할머니 댁 찬장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을 법한 촌스러운 이 컵이 이제는 귀하신 몸값을 자랑하며 빛을 발하고 있죠.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유행이 지나 보잘것없어 보여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이 컵도 새로운 가치가 생겼죠. 우리 넥센인 모두 이 호돌이 컵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빛을 발하는 때가 꼭 올 겁니다.



##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노력을 아는 사람

내구성능연구계 이영남

어느 날 뜬금없이 후배가 물고기를 키워보라며 어항을 주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한 물 생활. 물 갈아주랴, 밥 챙겨주랴, 청소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고 소홀히 하면 금방 어항 속의 세상이 변합니다. 물고기들이 병이 나기도 하고, 이끼가 끼기도 하죠. 이제는 관리 잘된 어항을 보면, 아름다운 어항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관리했을 주인의 수고가 보입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어항을 가만히 바라보면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게 어항은 취미 생활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 산으로 바다로, 자연을 거침없이 탐험하는 사람

(CP) 몰드샵 최지웅

산악 텐트 중 최고라는 할레베르그사의 알락. 벌써 10년째 동고동락하는 최고의 등산 메이트입니다. 그리고 스쿠바프로사의 BC와 호흡기. 생명을 지켜주고 항상 새로운 바닷속 세상을 선사하는 나의 멋진 장비이자 길잡이입니다.



##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

(YP) 생산관리파트 김찬호 과장

나에게 작은 휴식을 주는 커피, 그리고 커피용품들. 매일 이른 아침 출근으로 무거워진 눈을 가볍게 해주고, 나른한 오후에 활기를 주는 향기로운 커피 한잔이 무엇보다 소중한입니다. 가벼운 인스턴트커피도 좋지만 어렵지 않게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커피 원두와 커피용품을 사랑합니다.



## 봄바람에 설레는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실랑 불어오기 시작한다. 왠지 모를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볍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봄을 만끽하러 나가보자. 마음부터 따스해지는 봄맛이 축제와 공연, 전시, 책들을 소개한다.

정리 정유미

### 축제



제주 바다만큼 넓은 유채꽃밭

#### 창녕 낙동강유채축제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가지 않아도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 단일면적 최대 규모라는 110ha(33만 평)의 유채꽃밭이 바람에 넘실거린다. 2019년 경상남도 대표 축제로도 선정되었다. 유채꽃 사이사이로 다양한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해 추억도 예쁘게 남길 수 있다.

기간 4월 11일~4월 14일

장소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유채단지 및 남지체육공원 일원

문의 055-526-1331



수제가 대세, 수제 야생녹차 천국

####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하동은 신라시대 중국 당나라에서 차를 들여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한 곳이다. 보성과 달리 하동의 녹차는 대부분 야생차다. 야생에서 자란 녹차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따서 생산하기 때문에 향과 맛이 뛰어나다.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서 수제 녹차 본연의 맛을 즐겨보자.

기간 5월 10일~5월 13일

장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약양면 일원

문의 055-880-2052



브로드웨이 그대로 부산에서 즐겨요

#### 뮤지컬 <라이온킹> 인터내셔널 투어

20개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되며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뮤지컬 <라이온킹>이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인터내셔널 투어를 한다. 그 여정의 마지막을 부산에서 빛낸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의 엄청난 스케일을 부산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한글 자막도 띄워 주니어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기간 4월 11일~5월 19일

장소 부산시 남구 드림씨어터

문의 1833-3755

### 공연

포근한 음악과 함께하는 봄 소풍

#### 뷰티풀민트라이프 2019

뷰티풀민트라이프 콘서트는 무대 아래 돛자리를 깔고 앉아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콘서트다. 자연을 생각하는 취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도시락이나 텀블러에 담긴 음식들만 반입이 가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캠페인도 진행한다.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봄 내음 가득한 올림픽공원으로 소풍을 가보자.

기간 5월 11일~5월 12일

장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문의 instagram @beautifulmintlife\_, www.mintpaper.com



무대 위에서 10년 동안 쌓인 내공

#### 뮤지컬 <영웅>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뮤지컬 <영웅>이 10주년을 맞았다. 뮤지컬 <영웅>은 한국 뮤지컬 대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받으며 창작 뮤지컬 단일 작품으로는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개막 10주년을 맞아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스토리 및 넘버가 부분 수정된다고 하니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다.

기간 5월 17일~5월 19일

장소 울산시 남구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052-275-9623





동화 일러스트의 현재와 미래

###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은 〈볼로냐 국제 어린이도서전〉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권위 있는 아동도서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일러스트레이터를 선정한다. 특히 이 대회에서 선전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따로 마련해두어 관심도를 더한다.

기간 2월 15일~4월 28일

장소 대구시 수성구 대구MBC특별전시장 엠가

문의 053-744-5400



### 아직 즐거운 날이 잔뜩 남았습니다

bonpon, 웅진지식하우스

인스타그램에서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진 노부부가 있다. 인생은 60부터. 요즘 유행하는 말이다. 100세 시대,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이나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자. 단순히 노부부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을 즐기는 법까지 배울 수 있다.

#인생은\_60부터#미니멀라이프

#립스타그램#시밀러룩



###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웨일북

90년대생은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세대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을 강요하는 것을 꼰대 문화라고 부르며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자신은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맞게 사회를 바꾸어가고 있다. 이 책에서 90년대생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밀레니얼#90년생

#너네는\_대체\_왜그래?

#내가\_꼰대라니

## 전시

시대를 앞서간 패션 화보의 혁명

###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 전>

KT&G 상상마당은 20세기 거장 시리즈 여섯 번째 주인공으로 영국의 혁명적인 패션 사진가 노만 파킨슨을 소개한다. 노만 파킨슨은 당시 전형적이었던 실내 스튜디오 촬영 형식을 깨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야외 배경의 패션 사진을 만들어낸 선구자다. 노만 파킨슨의 예술적인 사진들을 보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아보자.

기간 2월 15일~4월 30일

장소 부산시 동구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1, 2층

문의 051-630-5200



고흐와 함께 인생샷 남기기

### <반 고흐 빌리지 전>

최근 유행하는 체험형 기획 전시로,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컨버전스 아트 전시다. 그림들만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IT 기술이 결합되어 멀티미디어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영상으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고흐의 작품을 즐길 수 있다.

기간 오픈런

장소 부산시 기장군 본다비치스퀘어 부산

문의 070-7766-8889



## 책



### 내 어머니 이야기

김은성, 애니북스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책’으로 <알쓸신잡>을 통해 재조명된 만화책. 인기에 힘입어 절판된 지 4년 만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저자가 10년에 걸쳐 어머니의 이야기를 녹취하여 어머니의 입말을 최대한 살렸다. 실감나게 살아난 함경도 사투리가 투박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준다. 한 여자의 일생이 역사가 되는 과정을 흑백 그림으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 더 매력적이다.

#어머니는\_위대하다#TV도\_위대하다#고마워요\_엄마

#엄마가\_제일\_좋아



###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권정자, 김덕례, 김명남 외 17인, 남해의봄날

할머니들이 여든의 나이에 뒤늦게 한글과 그림을 배웠다. 할머니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이 이야기지 기한 그림과 글로 살아났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일기들을 위로 할머니들이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할머니들의 그림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따스하게 뭉든다.

#모든\_여자들의\_마음속에는\_소녀가\_산다#순천소녀시대

#그림일기#몽글몽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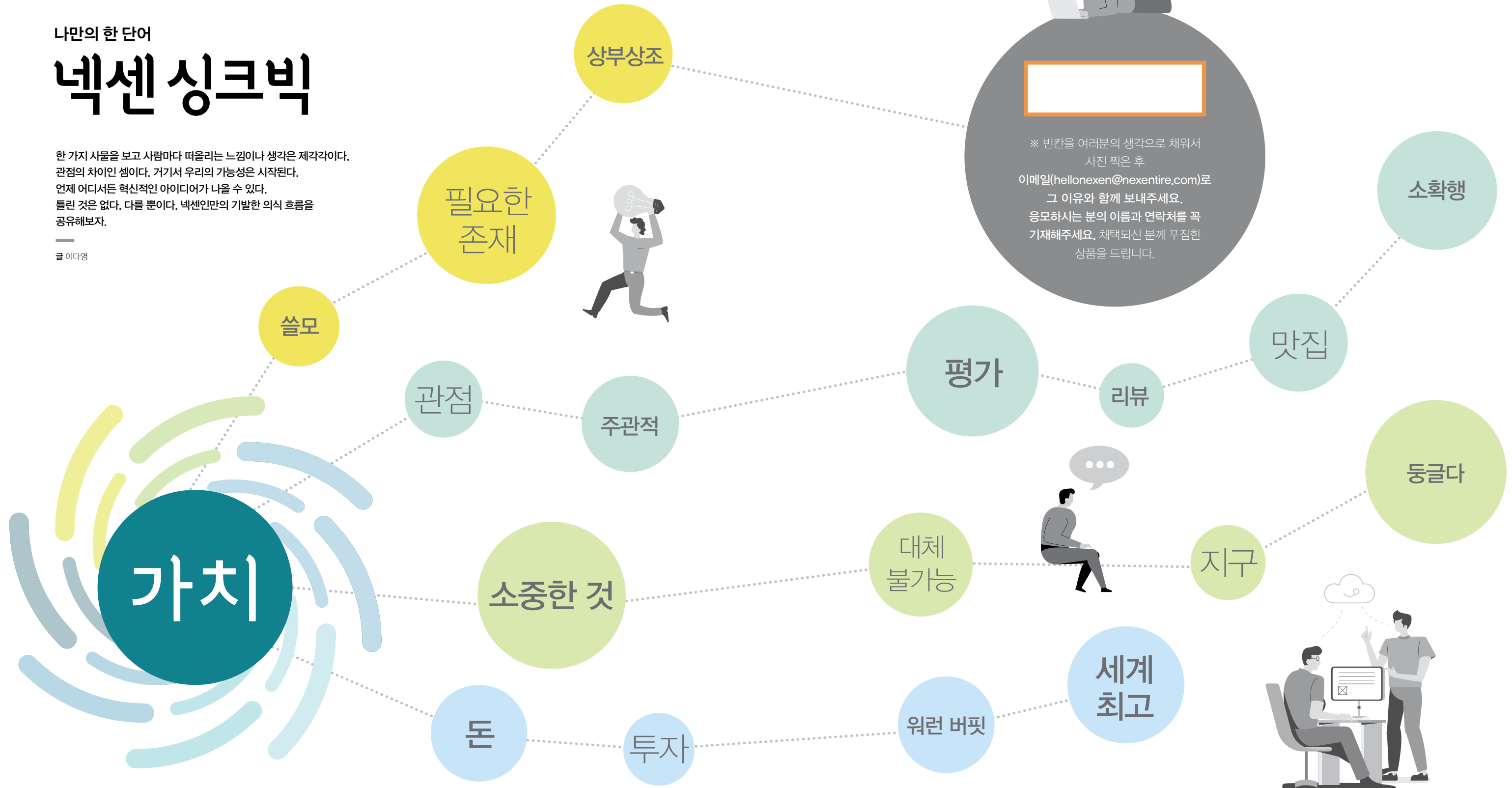


나만의 한 단어

# 넥센 싱크빅

한 가지 사물을 보고 사람마다 떠올리는 느낌이나 생각은 제각각이다.  
관점의 차이인 셈이다. 거기서 우리의 가능성은 시작된다.  
언제 어디서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넥센인만의 기발한 의식 흐름을  
공유해보자.

글 이다영





# GOOD MO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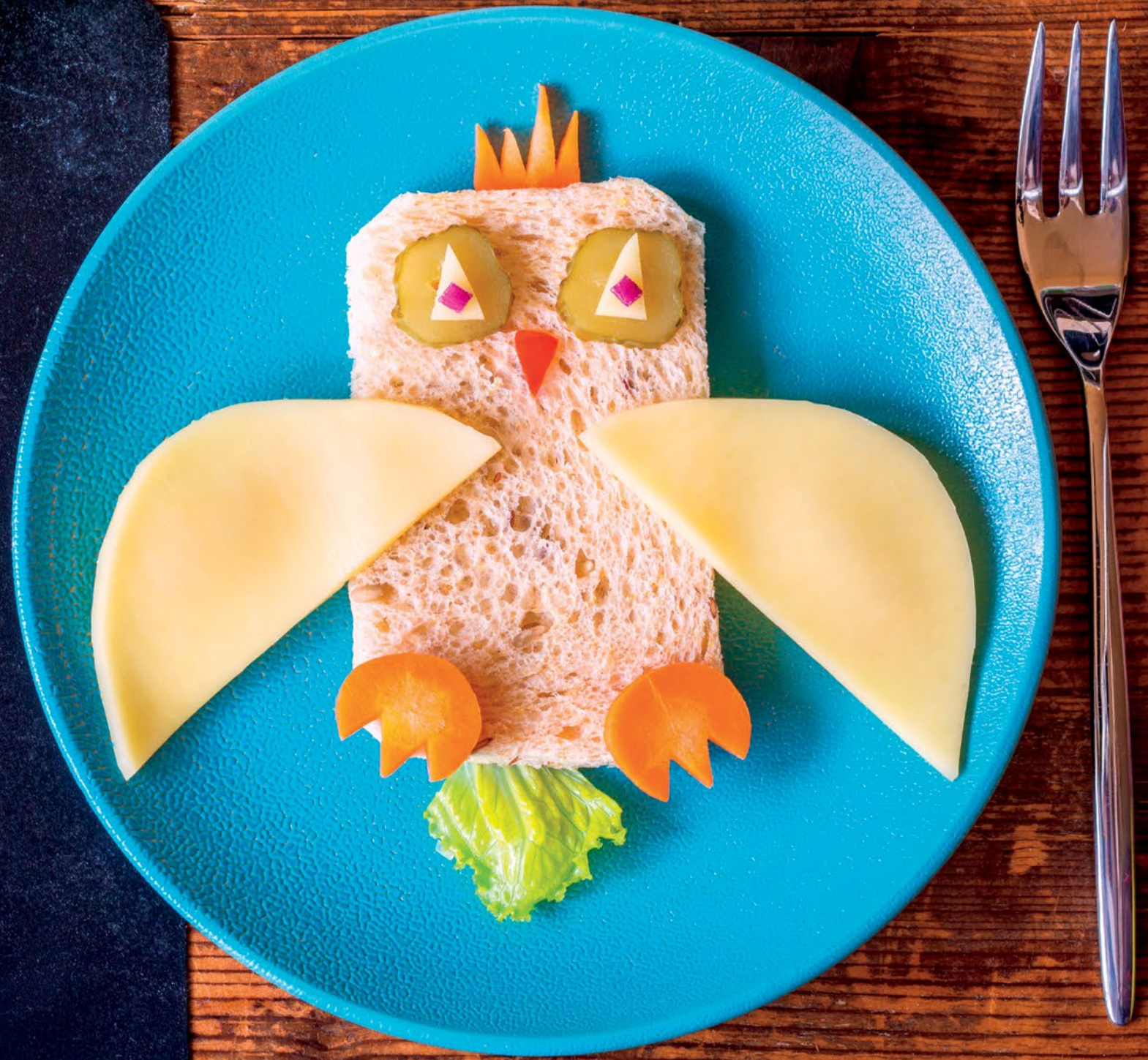
생활 속 친환경 브랜드

## 나의 아침을 친환경스럽게

생활에서 실천하는 친환경은 얼마나 될까? 생각에서 멈춘 친환경 실천이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설 때까지의 시간을 친환경에 맞게 사용해보자.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덤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지구 환경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클 이다영

시간은 금이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금같이 귀한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안타깝게 허비될 수도 있다. 당신의 아침 시간을 가치 있게 꽉 채울 수 있는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지구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의 투자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출근을 위해 사용되는 짧은 시간 속 곳곳에 친환경 제품을 배치해보자. 환경 보호와 친환경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관심 정도다. 눈을 떠서 출근할 때까지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당신 삶에 친환경을 들일 수 있는 브랜드를 소개한다.





6:00



### 부드러운 감촉의 친환경 **이불**을 겹쳐차며 힘차게 기상 **클래식 패브릭**

클래식 패브릭의 구스 이불은 뛰어난 통기성으로 수면 중에도 체온을 유지해주며, 무게가 가벼워 몸을 압박하지 않아 깊은 숙면을 도와준다. 또한 알레르기 방지 처리된 순면 원단을 사용하고, 가장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으로 알려진 오크텍스에서 최고등급인 CLASS1을 획득해 제품의 안정성까지 입증했다. 이외에도 거위털 원산지의 정확한 표기, 국내 제조공장 보유, 다양한 시험성적표 공개, 평생 수선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6:10



### 몽롱한 정신일도! 뽀뽀친환경 **비누**로 세수 **닥터 브로너스**

닥터 브로너스는 미국 농무부의 까다로운 유기농 기준에 따라 유기농 공법으로 재배한 성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바람직한 친환경 기업이다. 닥터 브로너스 제품은 100% 자연에서 분해되며, 그 어떤 합성 화학 성분이나 합성 보존제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전성분을 공개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원료를 모든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누린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 닥터 브로너스, 비윤리적이고 불필요하며 신뢰할 수 없는 동물실험 역시 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플라스틱보다 비싼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 환경 보전에 힘쓰고자 한다.



6:30



### 씻었으면 옷을 입어야지. 친환경 리사이클 원단 **옷**으로 갈아입기 **파타고니아**

버린 페트병 35개를 재활용해 만든 원단으로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스노 재킷을 완성한 파타고니아.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옷을 만들고, 제품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평생 수선을 보장한다. 매장 직원들이 간단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을 고치는 40가지 수선 방법을 홈페이지에 4개 국어로 공개해 소비자가 스스로 수선하고 재활용해 입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파타고니아의 신념을 통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지구를 구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통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지구를 구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게 된다.



6:40



### 분장 좀 해볼까? 친환경 **화장품**으로 또 다른 나 소환 **이니스프리**

친환경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이니스프리는 믿을 수 있는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의 혜택을 담은 친환경 그린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품 상자를 모두 재생지로 만들며, 최근엔 제주도에서 감귤주스를 만들고 버리는 껍질을 활용해 '이니스프리 제주 감귤지'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감귤지는 재생 펄프 95%와 감귤 껍질 5%로 만들어진 친환경 종이다. 원료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포장지를 만들기도 한다. 그린티 씨드 라인인 먹지 않는 녹차로 만든 녹차지로 포장하고, 에코 사이언스 라인인 해조 부유물로 만든 해조지에 포장한다.



7:00



### 알록달록 친환경 **식기**를 꺼내 입맛 돋우는 식사 준비 **에코소울라이프**

지구상에 플라스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광범위한 연구와 투자를 거듭한 끝에 에코소울라이프가 탄생했다. 플라스틱 용기 대안으로 대나무 분말, 버 겹질, 옥수수 전분 등을 사용해 만든 에코소울라이프 식기는 폐기된 후 땅속에 묻히면 2~3년 내에 완전히 자연 분해된다. "환경의식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실천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기업, 에코소울라이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7:05



### 친환경 **음식**으로 만든 건강한 아침 식사 **초록마을**

'건강과 지속 성장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초록마을은 'CHOROC MEANS ORGANIC'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세상,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자연환경 보호의 가치에 집중한다. 식품 제조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녹색 유통을 도입한 친환경 전용 물류 센터를 설립해 탄소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폐기물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는 1화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옥수수로 만든 자연분해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튼튼한 장바구니를 대여해주는 캠페인 또한 시행 중이다.



7:30



### 내가 먹은 그릇은 친환경 **세제**로 깨끗하게 설거지 **메소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3만 5,000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12년 한국에 론칭한 메소드는 미국 no.1 친환경 브랜드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메소드는 싱크대 아래 숨길 필요 없는 아름답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패키지 병을 100% 용기로 재활용하는 등 원료 성분뿐만 아니라 설계, 제조 과정에서도 리사이클이 되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마크 'Cradle to Cradle(요람에서 요람까지)' 초기 승인을 받은 기업 중 하나이며, 현재는 60개의 'Cradle to Cradle'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7:40



### 준비 완료. 가벼운 친환경 소재 **신발**을 신고 활기차게 출근 **올버즈**

'양털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운동화'라는 찬사를 받는 올버즈.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바람이 잘 통하며, 양말을 신지 않아도 보송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올버즈의 양털 운동화는 친환경적이며 제작 공정에 드는 에너지도 합성섬유보다 60%나 적다. 또한 올버즈의 사탕수수로 만든 운동화 밑창은 공정 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며, 자연 소재로 만들어 쓰레기 문제도 없다. "편안함, 단순한 디자인, 지속 가능한 재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3가지만 고려한다"는 올버즈 제품을 선택해 친환경에 동참, 의미 있는 소비를 실천해보자.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우선입니다.  
바른 길로 떠나는 여정은  
행복을 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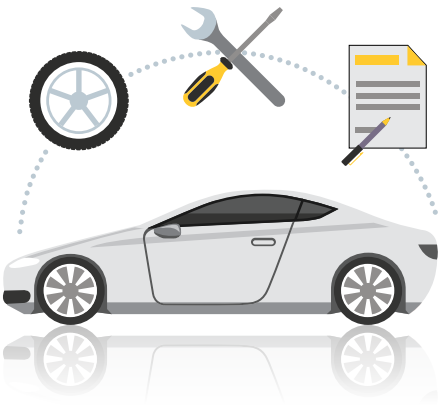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 타이어테크 오금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끝자락, 눈발이었던 벌판에 새 건물과 공원들이 들어서며 새로운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곳, 그 가운데 새롭게 동지를 틀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타이어테크 오금점 김동호 점장을 만나보았다.

글 정유미 사진 이맹호



타이어테크 오금점은 작년 12월 15일에 오픈했습니다. 이 지역은 송파구 안에서도 최근 새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서면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 한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가게 주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 지점도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시설뿐만 아니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시설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정비를 할 때 효율적인 동선이 나오면서 손님들의 구매 욕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내부 배치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리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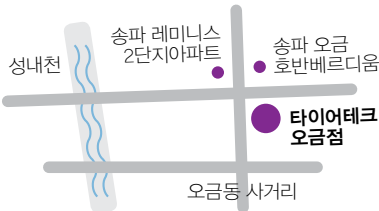


저는 타이어 판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점검 전화를 꼭 드려서 직접 통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가신 손님에게 며칠 뒤 사후 점검 전화를 드렸더니 꼼꼼하게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타이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부담 없이 자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친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친절하고 꼼꼼한 지점으로 주위에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 김동호 점장



지금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많이 바쁜 시기가 아니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이어테크 직영점은 타이어 판매 수에 따라 직원 수가 배정됩니다. 보통 직원이 3명이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점을 직원 3명까지 둘 수 있는 지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지점으로 발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328  
영업시간 : 09:00-20:00 (일요일 휴무)  
문의 : 02-449-5989



# NEWS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9'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19'에서 '엔페라 AU7'이 제품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1953년부터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불리며,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건축 등 7개 부문에서 출품작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모든 수상작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웹사이트와 'iF design'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iF 디자인 상설 전시장에 전시된다. '엔페라 AU7'은 고급 세단을 위해 개발된 프리미엄 UHP 타이어로,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이다. 또한 소음, 진동 부분에서 대폭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해 프리미엄 차량에서 요구되는 안락한 주행 성능도 확보했다. 여기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7'의 형상적 특징을 디자인에 적용해 큰 호응을 얻었다. 넥센타이어 연구개발 천경우 BG장은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수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의 디자인 역량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의 성능 향상은 물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 약 6,400개의 출품작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 NEWS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론칭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을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강화하여 새롭게 선보인다고 2월 11일 밝혔다. '넥스트레벨'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하고 정기적으로 타이어 점검 및 차량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론칭 이후 누적 판매 42만 개를 돌파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고객맞춤형 타이어 렌탈 서비스는 비교적 주행 거리가 짧고 경제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알뜰 렌탈'부터, 차량 운행이 잦아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고 차량 관리를 중요시하는 고객을 위한 '슈퍼 렌탈'(타이어 4+4, 정기 방문점검 서비스 포함 케어 서비스 3종, 엔진오일 3회 무상 교체)까지 총 5대 추천 상품을 출시했다. 이 밖에도 렌탈 계약 기간, 타이어 필요 수량과 서비스 횟수를 고객이 선택하여 월 렌탈료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자유 렌탈' 상품까지 출시해 고객 중심 서비스 상품으로서 '넥스트레벨'의 가치를 높였다. 새롭게 출시한 '넥스트레벨'은 타이어 렌탈 홈페이지(www.tirerental.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타이어테크 및 제휴된 렌탈 전문점에서도 동일한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제휴 카드 이용 시 매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 NEWS

## 공식 파트너 맨체스터시티 카라바오 컵 우승 기념 이벤트 실시



넥센타이어가 공식 파트너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의 ‘카라바오 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했다. 넥센타이어의 공식 파트너사인 ‘맨시티’는 2월 25일(현지 시간 24일)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구단 역사상 6번째로 잉글랜드 풋볼 리그 컵인 ‘카라바오 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이벤트는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넥센타이어 맨체스터시티 파트너십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퀴즈 및 댓글 이벤트가 마련되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맨시티 유니폼, 맨시티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이벤트 참여 및 자세한 사항은 넥센타이어 맨체스터시티 파트너십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MCFCKR](http://www.facebook.com/NEXENMCFCKR))을 통해 공지됐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맨시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2017년에는 EPL 최초로 선수 유니폼 소매 부분에 기업 로고를 새겨 넣는 ‘슬리브 파트너’를 체결하는 등 스폰서십을 확대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맨시티 구단을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해 유럽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EPL의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한 맨시티는 지난해에 이어 2018/19년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 NEWS

## ‘엔페라’ 구매 고객 대상 사은 이벤트 실시



넥센타이어가 프리미엄 제품인 ‘엔페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월 4일 밝혔다. 이번 감사 사은 이벤트는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프리미엄 제품인 ‘엔페라 AU7’과 ‘AU5’, ‘RU5’ 중 한 가지 제품을 4개 구매한 고객에게 ‘볼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차량용 공기청정기’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 쿠폰을 현장 증정한다. 더불어 타이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 대리점을 방문한 넥센타이어 장착 고객 전원에게 4대 무상 점검 서비스(타이어 위치 교환, 밸런스, 공기압, 마모 점검)를 제공하며, 타사 제품 장착 고객에게도 2대 서비스(공기압, 마모 점검)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넥센타이어 전문 유통 브랜드 타이어테크뿐만 아니라 타이어 전문 매장인 타이어뱅크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벤트 및 행사 대리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㉞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독자 당첨자

\*괄호는 링크백 선정원 답변임

최재환 (3일씩 재다짐)

박정웅 (아이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하을봉 (혁신목표 달성)

강구권

이준임

당신이 찾는 프리미엄 그 이상의 가치

# N FERA AU7

PREMIUM-COMFORT ULTRA HIGH PERFORMANCE



NOISE REDUCTION SYSTEM  
저소음 흡음재 적용 시스템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위한 엔페라 AU7만의 7가지 혁신 테크놀로지

### TECHNOLOGY 1

숫자 7을 모티브로 한  
감각적 스타일의  
패턴 디자인 밸런스

### TECHNOLOGY 2

최상의 소음성능과  
저 진동 설계로  
탁월한 승차감

### TECHNOLOGY 3

내구성 향상을 위한  
3D 사이프 적용으로  
강화된 트레드

### TECHNOLOGY 4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뛰어난 배수성능

### TECHNOLOGY 5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강력한 원터성능

### TECHNOLOGY 6

공명을 저감용  
흡음재 적용으로  
획기적인 소음저감

### TECHNOLOGY 7

평크가 나도  
드라이빙은 계속된다  
넥센스마트씰 적용

※ 일부 규격에 한함

**NEXEN NEXEN TIRE**





2018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9년 연속 1위

**NEXN** 넥센타이어

# 타이어 렌탈 서비스 이용해보셨어요?

타이어 언제 교체하세요?  
엔진오일은 언제 교체하세요?

타이어가 마모 혹은 파손되어도 무상 교체해주고  
엔진오일도 점검에서 교체까지 무상으로 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타이어 구매 제안 '타이어 렌탈'  
고객님께 딱 맞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자유 렌탈**

고객님 마음대로 렌탈 상품 설계 가능



문의전화 1855-0100

타이어렌탈



**NEXT LEVE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